

## 恩師 橫田成三先生 來韓에 즈음하여

1940年度 京齒專卒業, 夏南基督齒科醫院  
院長 金文祚

太平洋의 同伴者로 韓日兩國이 새時代를 여는 이 즈음, 일찌기 韓國에서 生長을하고 學德을 닦은 後母校에서 教鞭을 잡으시면서 韓國學生들을 사랑하셨던 恩師 橫田先生께서 夫人同伴으로 弟子와 後輩들을 찾아 서울에 오시게 되어 마음속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치과교정학의 권위 橫田成三박사 근영〉〉

先生은 南大門小學校, 京城中學을 거쳐 京城齒科醫專을 나오셔서 東京高等齒科醫學校에 留學後 母校 京齒專에서 教鞭을 잡으시다가 終戰後 九州齒大에서 多年奉仕하신다음 停年退職하시고 福岡市内에서 開業을 하고 계시는데 病院患者가 웬만한 齒大附屬病院 矯正科 數자만 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先生의 京齒專同期生으로서는 大田 任胃燦, 釜山 金淳培先輩님들이라 하며, 師母님은 京城第二 高女(現 首都女高)를 나오셨고, 친정오라버니 山中大吉氏는 지난날 서서 변호사를 하였고, 지금은 九州熊本市에서 변호사를 하시며 熊本縣 韓日親善協會長으로서 서울에 자주 來往을 하시는 분으로 先生의



〈김문조씨 가족들이 촬영(김포공항에서)〉

家庭은 모두 親韓中에도 親韓인 人士들이십니다.

先生은 일찌기 矯正齒科學을 專攻하셔서 斯界에 있어서 日本國內는 勿論, 世界的으로 大家가 되셨는데 여기에는 看過하지 못할 師母님의 內助의 功이 있습니다. 織物로 比喩한다면 先生의 學門에 對한 忠直性을 攄(縱糸)로 하고 師母님의 賢明한 內助를 攄(橫糸)로 하여 오늘날 훌륭한 橫田矯正 織布를 完成한 것입니다. 바라옵건데 이 織布의 聲價가 世界의 坊坊谷谷에 널리 퍼지기를 弟子들은 願합니다.

先生의 生을 기울인 學界奉仕와 貢績은 天聞에 達하는 바되어 지난해에는 勳三等旭日章의 叙勳을 받으시고 日本國民으로는 最大의 榮譽인 天皇陛下



〈제자와 후배들로 찬 만찬회장〉



〈환영사를 하는 이훈근박사〉



〈KBS TV와 인터뷰, 목이메어 말을 못하겠다 하는 요꼬다선생〉



〈선물을 받고 인사하는 요꼬다선생 내외분〉



〈강연을 마치고 모교학장실 방명록에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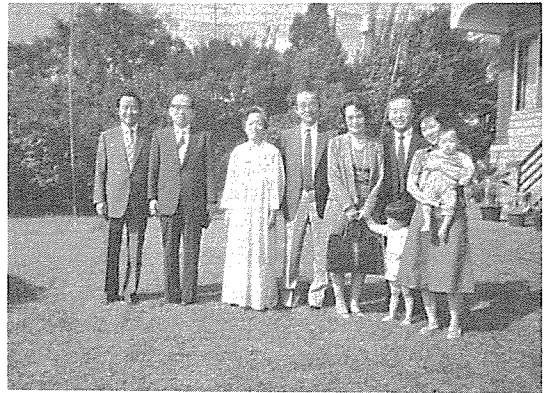
拜謁(그것도 夫婦同伴으로)의 榮光을 입게 되었습니다.

先生은 令息 3人을 齒科醫로 키위 學界에 奉仕시키고 있는 中 올봄에는 孫子가 醫科大學에 進學하게 되어 橫田家는 이제 完全히 醫學家가 되었습니다. 同慶해서 마지 않습니다.

先生께서는 10餘年前에 서울齒大의 新築移轉때 大學의 招請으로 來韓하신 일이 있는데 지금은 訪韓計劃은 아나가지고 계시는 중 지난해 先生께서 40餘年동안 찾아오시던 韓國의 한 弟子의 消息을 들으시고 이제 한번더 한국을 訪問할 계획을 세우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消息이 서울의 齒科界에 傳해지자 “그 貴한 손님을 한두 弟子가 맞아 모실것이 아니라 全齒人들이 모두 歡迎을 해야 한다”고 有志들이 主張, 金鴻基 前 서울시齒科醫師會 會長은 先生께 講演을 請하자 하시면서 保社部의 承認을 得하여 오늘 先生의 來韓이 더욱 榮光스럽게 되었습니다.

先生의 그 多忙하신 中에도 貴重한 時間을 割愛하셔서 弟子와 後輩을 찾아주시는 慈愛에 다시한번 感謝를 드리며, 또한 先生의 來韓을 眞心으로 歡迎



〈李훈근박사 댁에서 조찬을 마치고 정원에서〉

하는 李柱鳳 서울시會長을 비롯하여 全會員, 그리고 同窓會員 여러분께 깊이 感謝드립니다.

끝으로 橫田家의 오늘의 光榮을 하나님께 感謝하고, 恩師內外分의 萬壽無疆을 祈願하는 祝杯를 높이 들고, 아리랑 노래를 合唱하십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명난다.  
브라보!(끝)